

한국의 현대미술



십자가(十字架)



윤동주
(1917~1945)

쫓아오든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敎會堂) 꼭대기
십자가(十字架)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鍾)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든 사나이,
행복(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十字架)가 허락(許諾)된다면

목아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5·31)

시 이야기

올해 4월에 용정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과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十字架)'를 신앙 시의 백미라 여겨온 터라 윤동주의 모든 시비(詩碑)에 병기된 한자가 몹시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읊기를 새롭게 읽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읊기를 읽으면서 '고통의 읊이라는 사나이'를 '행복한 부자 읊'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十字架)'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셔요. "괴로웠든 사나이, 행복한 예수·그리스도"라는 구절에 다다르면 절정의 십자가 도(道)가 느껴집니다.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지는 예수·그리스도처럼 자신도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모습을 행을 바꾸어서 '처럼'으로 표현한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이 이 시(詩)의 압권입니다. (이주하 편집위원)



통권 제110호
The Well-Watered Garden

권두언	02	김준호 담임목사	[물댄동산]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새가족소개	04	새가족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새가족 글	06	권중철 성도	귀국,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
	08	김생곤 성도	청라언덕을 산책하며 구면인 대구제일교회...
목양부	10	노선희 권사	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신임 교역자 소개	12	한영철 목사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13	박해수 전도사	가정, 일터, 학업 그리고 사역
미소사진	14	홍보출판부	여진대회 찬양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15	임미리 집사	[영아부]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17	송지원 집사	[유아부]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18	이형민 집사	[유치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20	이지원 청년	[초등1부]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 하는 부흥대작전
	22	채해진, 방은우 학생	[초등2부] 거인PROJECT 위대한 사람
	23	김영미 집사	[초등3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름수련회 소감문	24	이명규 성도	[중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나길
	26	박예담 학생	[고등부] 나(하나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 하리니...
	28	조혜지 성도	[청년1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찾아서
	30	전정희 성도	[청년2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의료선교부 선교보고	32	박선미 피택권사	방글라데시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청년부 미안마 단기선교 소감문	34	최형규 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청년부 국내선교 소감문	36	박상은 성도	화마로 무너진 안동 신덕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해외선교부 사역보고	37	이필창 선교사	콜롬비아 푸사신학교 사역
홍보출판부 활동 소감문	38	전용철 안수집사	홍보출판부 취재기자를 하면서...
신앙수필	39	이정재 은퇴장로	우리는 정원사
고것이 알고싶다기/획/취/재	40	양홍철 장로	대구기독교원로원을 아시나요?
	42	홍보출판부	교회의 얼굴 주차봉사부!!
	44	홍보출판부	변화하는 시대, 교육의 새로운 길-교육부 사역자
5분독서	48	홍보출판부	하나님의 DNA
피택장로 소감문	50	이금환 피택장로	장로 피택, 은혜의 여정을 걸으며
피택권사 소감문	52	배정은 피택권사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권사가 될 수 있기를...
피택안수집사 소감문	53	표동철 피택안수집사	영적 간절함이 느낀할 때 찾아온 주님의 명령, "내 양을 섬겨라!"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식 참관문	54	김상한 은퇴장로	나라 지킴이를 위한 「6종 선물세트」
성도의 글	56	이상원 성도	달력 사진에서 본 우리 교회와 여러 생각들...
	59	변정자 은퇴권사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62	김동현 은퇴안수집사	성경공부에 AI(ChatGPT) 활용하기
	64	이미영 집사	경계에서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66	홍보출판부	



김 준 호 목사
(대구제일교회 담임)

[물댄동산]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물댄동산이 드디어 110번째 출간이 되었습니다. 110번의 숫자는 그냥 이루어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110번 하나님이 대구제일교회 가운데 일하셔야지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각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글과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나온 물댄동산도 그저 당연하게 나온 간행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물댄동산을 보면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 호마다 새로운 내용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이들의 수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한 수많은 간증과 고백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이들의 소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헌신했던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물댄동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고했던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동일하게 내가 헌신해야 하는 것들



이기에 우리는 물댄동산을 읽으며 이것이 나의 은혜이고 나의 사명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 가족이기에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읽으며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책이 전도의 목적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만 같은 암흑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살리시고 계심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삶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물댄동산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읽고 은혜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도 나누어 그들의 삶에서도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물댄동산의 주인되셔서 사람의 영광과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댄동산을 사용하시고 물댄동산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부씩 가져가셔서 꼭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임춘실 _ 3교구 5구역



양능우 _ 2교구 14구역



이두일 _ 1교구 9구역



김종성, 엄지혜 _ 2교구 16구역



송병애 _ 1교구 10구역



김주하 _ 3교구 1구역



박미영 _ 1교구 15구역



방우리 _ 4교구 18구역



이현옥 _ 2교구 13구역



박정상, 이진희 _ 1교구 8구역



김경화, 황보은수 _ 4교구 26구역



이진희, 이소정 _ 1교구 14구역



황금중, 도미라 _ 1교구 4구역



김성주 _ 1교구 31구역



니렌다 콘다 _ 1교구 25구역

Welcome! New Family



씨찰리 루싸요 _ 1교구 25구역



나찰리 무썰리 _ 1교구 25구역



박소현 _ 1교구 8구역



백승은 _ 1교구 5구역



김명교 _ 14교구 25구역



이예준 _ 2교구 33구역



이병열 _ 4교구 25구역



황유진 _ 1교구 5구역



조봉근, 김성희, 조성렬 _ 1교구 6구역



이무세, 양미숙 _ 1교구 13구역



이경원 _ 1교구 24구역



김성봉, 정숙이 _ 1교구 31구역



류영순 _ 3교구 5구역



이명주 _ 1교구 31구역



김복년 _ 2교구 9구역

귀국,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권중철 성도

부모 형제와 친척, 친지를 떠나 사는 대부분의 이민자는 늘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 또한 장남으로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집안일과 부모님을 돌보는 모든 일을 막내 동생에게 다 맡기고 있었으니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어머니께서 밴쿠버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새벽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계셨지만 여러 형편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셨기에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에 대해 그 깊이를 더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교적 사고로 평생을 살아오신 완고하신 아버지께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갖고 계시며 영접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계셨기에 아버지의 구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인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늘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 병으로 고생하시며 연로하여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시는 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큰아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뇌졸중과 두번의 경운기 사고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서 시골의 전답과 집을 정리하여 대구로 오셨습니다.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제수씨가 믿음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기도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모셨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꽃집을 10년동안 힘들게 운영한 우리 부부는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고와 입원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서도 안정적인 이민생활에 안도감을 느끼며 차일피일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음은 외부적으로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2020년 12월 28일에 휴대폰을 바꾸려 한 인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두운 빗길에 다소 경사진 길을 내려가고 있는 데 앞에서 차선을 넘어 내 차로 돌진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차는 운전석 옆 문짝을 치고 지나갔으며 내 차는 주변 어느 주택의 주차장에 처박혔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와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고, 아내는 충격이 덜하여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었으나 내가 앉은 운전석은 에어백이 터지고 자동으로 문이 잠기어 열려지지 않아 911구조원이 와서 문을 부수고 나를 응급차로 옮겼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나와 아내는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가 여러 검사를 받았고 몇 시간 후에 다리와 뇌에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얼마 후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육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후 6:15-16)

체적 외상은 없었으나 우리 부부는 사고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약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 중단과 교통사고는 나에게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경고로 해석되었고 2년간의 치료가 끝난 후에 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연말에 휴가를 얻어 잠시 한국에 왔을 때 연로하신 부모님과 동생과 제수씨의 여러 상황을 접한 후, 나는 귀국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밴쿠버에 남겨둔 채 2023년 4월 29일에 먼저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귀국 후 부모님 돌봄과 우선적으로 마음에 소원을 둔 것은 가정예배와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믿었기에 새벽예배와 더불어 2개월 정도 어머니와 함께 거의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점점 다리도 불편하고 힘들어하셔서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읽으며 믿는 것의 본질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주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해 전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신 아버님은 방광에 이상이 있어 입원하셨으며 이 후 소변주머니를 차시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외래 진료와 치료를 계속 받으셨으며, 그 외 당뇨, 고혈압, 부정맥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 인지능력도 떨어져 종종 야간에 증상이 악화되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완고하신 아버지를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그 방법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예배를, 나는 거실에서 드렸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주일 가정예배를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보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시켜드릴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으며 침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요한복음과 사도신경을 유튜브로 자주 듣게 하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마음이 많이 열리신 것을 알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 후 여러 지인들과 순모임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팀에 아버지의 세례에 대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침 한국을 방문중이셨던 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담임목사님께 심방세례를 문의 드렸더니 승락해 주셔서 나는 30일 동안 주기도문, 사도신경, 세례문답 준비로 아버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3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생활의 방해자이셨던 아버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병상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반대하였던 나를 먼저 찾아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하신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 구원을 위해 20년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따라 구원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살던 나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이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문대동산

청라언덕을 산책하며 구면인 대구제일교회...



김생곤 성도
(2025년 등록)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
합 필 적에~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 곳!
그래서 봄이면 일부러 찾아왔던 곳!

청라언덕 동산에 대구제일교회가 있어서 감
동이 배가 되는 곳!

대구제일교회는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으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찾아왔던 교회입니다.

청라언덕을 산책하며 교회 앞마당 벤치에 앉
아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
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무척 부럽기도 했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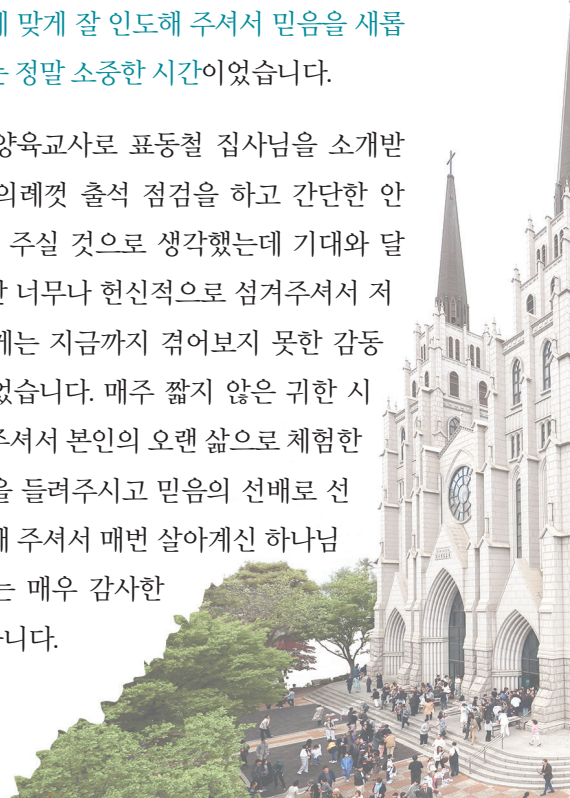
저는 직장 근무 관계로 수년 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2024년 7월에 다시 대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출석할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대구제
일교회로 결정하고 아내와 함께 출석하게 되었
습니다.

사실은 7년 전 제일교회에서 1년 가까이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서 교회 선택에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담임목
사님 청빙 과정 중이라 교회 등록은 새로운 목

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6
개월 동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차분히 기도하
는 가운데 은혜롭게 김준호 목사님을 청빙하기
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고 등록해야겠다는 결심
이 섰습니다.

새가족부에서 간단한 면담과 6주간 새가족 교
육에 참여해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새가족 교육이 조금은 낮
설기도 했지만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은 더할 나
위 없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교육내용도 매우
좋았고 강사님들도 열정이 넘쳤습니다. 교재 내
용을 충실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새가족의
신앙 상황에 맞게 잘 인도해 주셔서 믿음을 새로
게 점검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나바 양육교사로 표동철 집사님을 소개받
았습니다. 의례껏 출석 점검을 하고 간단한 안
내 정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대와 달
리 6주 동안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저
희 부부에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감동
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짧지 않은 귀한 시
간을 내어주셔서 본인의 오랜 삶으로 체험한
귀한 간증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선배로 선
하게 인도해 주셔서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
을 경험하는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6주 교육을 마치고 김준호 담임목사님과 만남
도 정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
님의 환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 표정에서
은혜가 전해지고 성도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교회 곳곳에서 **생동감 있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
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역에 배정받고 순 모임 참여도 권유 받았는
데 구역장이신 강영주 권사님께서서는 구역 단톡
에 매일 묵상 말씀과 찬양을 올려주시고 만날 때
마다 언제나 반갑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은혜
가 넘치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십니다.

순 모임은 한번도 해보지 않아 부담이 되었지
만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소 나
태했던 저에게 순모임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성
경을 읽게 하시고 매주 서로의 삶을 나누게 하셨
습니다. 이주원 순장님께서도 마치 큰형님 같이
든든하고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고 언제나 안정적인 인도로 중심을 잡아 주
십니다. 순원들도 모두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나**
눌 때 매번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 투어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까지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 그리
고 앞선 세대의 믿음과 섬김을 통해 지금까지 왔
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대구의 어머니 교회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답게 예배가 은혜롭고 경건하
며 신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헌신자가 많은 것 같
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께서도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모습은 많은 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새가족에게는 6주간 교육을 받
으며 만나는 새가족부원들이 유일하게 아는 사
람이기 때문에 새가족부원들의 모습을 통해 교
회의 첫인상이 남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그
역할을 기쁘게 은혜롭고 헌신적으로 잘 감당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가족 환영잔치 때에도 부
원 모두가 한결같이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잔잔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길 믿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
여 하여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등록을 하
지 않고 예배드릴 때와 등록을 하고 공동체와 함
게 할 때 느끼는 **은혜와 감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
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에 속하
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복음에서 사김**
으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와 더불어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
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물댄동산**



“일대일 양육”을 하고 난 후에



노선희 권사

환영등록, 그 이후의 이야기

6주간의 새교우 교육을 마치고 환영등록까지 마친 새 교우분들,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지금도 예배에 잘 참석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실까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찾은 새교우는 누군가의 관심 속에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라던지, 개인적인 결단 등으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분들은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듯, 신앙의 걸음을 이제 막 내딛은 초신자에게는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만약 환영등록 당시 함께 인사드렸던 많은 새교우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로 예배당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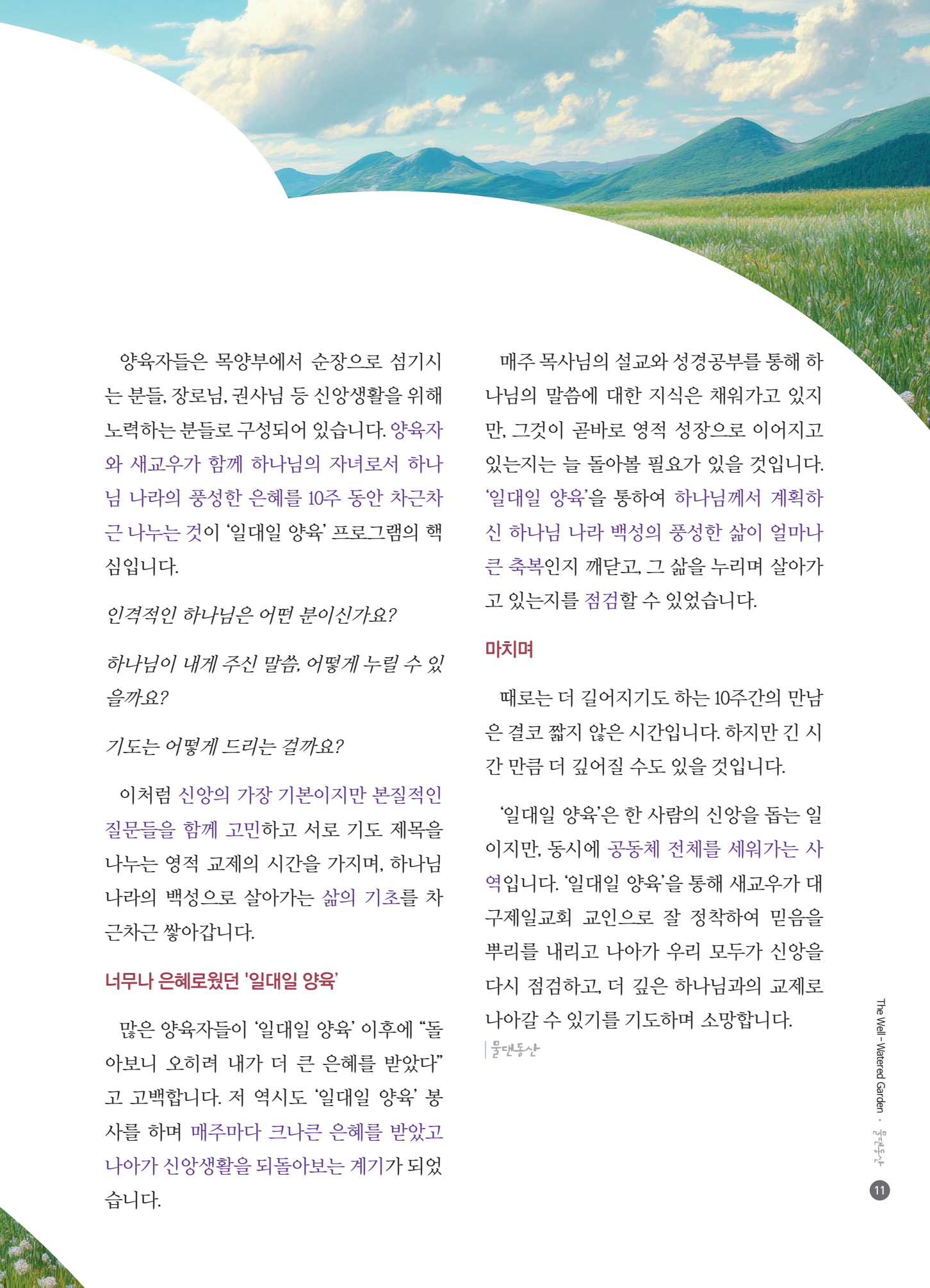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이 냉랭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책임**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교우 정착을 위한 '일대일 양육'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등록을 마친 새교우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목양부에서 10주간 진행되는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양육은 딱딱한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양육자들은 목양부에서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등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육자와 새교우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10주 동안 차근차근 나누는 것이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이처럼 신앙의 가장 기본이지만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너무나 은혜로웠던 '일대일 양육'

많은 양육자들이 '일대일 양육' 이후에 “돌아보니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일대일 양육' 봉사를 하며 매주마다 크나큰 은혜를 받았고 나아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채워가고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성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때로는 더 길어지기도 하는 10주간의 만남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 만큼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대일 양육'은 한 사람의 신앙을 돕는 일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 새교우가 대구제일교회 교인으로 잘 정착하여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 문단동안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한영철 목사
(찬양 전담)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7월 첫 주에 부임하여 주일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 찬양을 섬기게 된 한영철 목사입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슬하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다섯 식구가 올해 초 미국 앨버틴 온누리교회에서 2년 반을 섬기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부 사역을 8년간 섬겼습니다. 이후로 하와이 코나 YWAM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제자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최고의 전략가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깊고 풍성하길 기대하며 이미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예배자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큰 아버지, 아버지 모두 진심으로 존경하는 예배자이지만 이 글을 쓰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5년간의 암 투병을 하다가 2023년 12월 15일에 하나님 품에 안긴 (고)최말순 장로(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방향하던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 마음 깊이 새겨져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을 그릴 수 있단다. 그러니 걱정, 염려,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한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대구제일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용사,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길 바라며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살롬! | 물댄동산



가정, 일터, 학업 그리고 사역



박해수 전도사
(청년부 찬양)



안녕하세요. 2025년 7월부터 청년부 찬양 전도사로 코람데오 찬양팀과 품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박해수 전도사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영남신학대학교 입학 후 경산에 거주하며, 기독교 교육학과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지금은 초6 아들(주원), 초2 딸(주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부 졸업 후 찬양사역의 꿈을 품고 백석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기독교음악학(CCM 보컬)을 전공했고, 늦었지만 현재는 신대원(야간) 1학년으로 배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2011년 창단한 '코스 미니스트리' 찬양팀을 통해 예배 인도자로 섬겨왔으며, 현재까지 다음 세대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찬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JListen(제이 리슨)이라는 이름으로 CCM 사역 및 음반 제작도 함께하며 지방 사역자로 꾸준히 사역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평일 주간에는 직장 생활을,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는 학업을,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4번째 싱글 '그댄 알고 있나요'의 가사처럼 '숨 가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 쉬게 하신다'**는 고백을 늘 되새기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저의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정, 일터, 학업, 그리고 사역은 모두 저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쓰심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대구제일교회 찬양팀과 품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미소사진-여전도회 찬양대





임미리 집사
(영아부 교사)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2025년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에 다소 부담도 되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글을 써보려 합니다.

올해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예수님 믿는 아이 점프점프”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첫째 노엘이가 백일을 조금 넘겼을 때 처음 영아부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둘째 아엘이, 셋째 다니엘까지 함께하며 어느덧 5~6년이라는 시간을 영아부와 함께하게 되었네요. 그 사이 세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했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네 번가량 여름성경학교를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셋째 아이의 마지막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였기에,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의 시간이 떠올라 몽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조그맣던 어린아이들이 어느덧 자라 유아부와 유치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영아부에서의 신앙 경험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든든한 기초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특히 여름성경학교는 매년 신나는 율동과 다양한 활동들 덕분에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열정적인 율동 선생님들과 수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섬김 덕분에,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린이 아버님의 ‘달달토끼’ 공

연은 이번 성경학교의 잊지 못할 장면이었고, 사실 작년에 저희 남편이 준비했던 ‘라파키즈’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입니다. 이런 부모 참여 프로그램들이 성경학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영아부에는 아직 혼자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이므로 부모의 동참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를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오히려 부모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파라슈트를 활용해 사랑의 풍선을 띄우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며 ‘점프점프’ 했던 시간, 교재에 스티커를 붙이며 즐거워하던 모습, 그리고 다양한 장애물을 넘으며 예수님께로 향하던 활동 등 그 모든 순간들이 참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착지에서 빛을 켜며 예수님을 만났던 활동도 아이들에게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눈 식사교제의 시간 또한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묵묵히 수고해주신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아부, 유치부에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영아부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신앙의 기초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아기들이 첫 신앙의 씨앗을 심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대동산





송지원 집사
(유아부 총무)

1년에 단 한 번, 가장 많은 예산과 기도가 집중되는 여름성경학교! 임원으로서 처음 준비하는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이래도 되나?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급할 수 있었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주제 강의를 맡으실 정도로 프로그램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 김현진 목사님, 완벽주의에 가까운 꼼꼼함으로 함께해 주신 임원진들, 그리고 언제나 즐겁고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는 유아부 선생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날씨로 인해 계획했던 여러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너무도 밝은 얼굴로 여름성경학교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땀 흘려 뛰어다녔던 시간들이 모두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막바지 준비를 위해 연차까지 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유아부 선생님들,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주신 부모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였던 '예수님 믿는 아이(I)'로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JUMP! JUMP!' 하며 자라나고 믿음 위에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다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깁니다. | 물댄동산



이형민 집사
(유치부 교사)

올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치부 교사로 함께하며 아이들과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큰 축복이자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여름성경학교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 사역은 언제나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제가 누리지 못했던 시간까지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여는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아직 글자를 또박또박 읽기도, 긴 시간 집중하기도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작은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예배해

요”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몸짓과 노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위한 약속을 지키며, 작고 어린 입술로 고백을 드리는 모습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예배자로서 든든히 서 가는 모습은 참 소중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총무의 역할을 맡아, 세부적인 행사 준비와 전체 일정 조율을 감당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임원 선생님들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헌신해주신 여러 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단순한 교회 행사의 진행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마음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성경학교는 단순한 ‘봉사’ 시간이 아니라 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뛰어놀며, 저 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는 단지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니라, 제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소중한 메시지가기도 했습니다.

성경학교 첫째 날 모든 순서를 마친 뒤, 먼발치에서 본 교회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회 위에 드리운 그 붉은 노을은, 마치 다음 세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심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훗날 이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그 귀한 시작이 되었음을 감사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예배자로 든든히 서가는 유치부 아이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초등1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이지원 청년
(초등1부 교사)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초등1부는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 하는 부흥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성경학교는 초등1부의 1년 사역 중 가장 큰 행사인 만큼, 한 달 전부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준비에 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주일 회의 때마다 아이들, 교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서를 섬기는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릴레이 기도로 동참하는 기도회 또한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성경학교가 단지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는

연례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부터 섬기는 자로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정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하며, 성경학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1부를 섬긴 지 2년 차, 같은 아이들을 오래 지켜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이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번 성경학교였습니다.

장난스럽고 순진무구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친구에게 먼저 사과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배웠고, 상으로 받은 간식을 아낌없이 없이 조원들과 나누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진다"는 고백을 스스로의

입술로 말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제게 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자녀와 함께 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촛불로 빛나는 십자가 앞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꼭 껴안고 기도하던 그 순간은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과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자녀를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부모님들의 담대한 사랑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흥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초등1부 여름성경학교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에서 잊을 수 없는 부흥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주님께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출 때, 앞에서 찬양과 율동을 인도했던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계속 삼켜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심에 감동의 전율이 온 몸을 흘렀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대구제일교회 초등1부 아이들 한명 한명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단동산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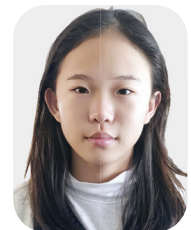
기원PROJECT 위대한 사람



채혜진 학생
(5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채혜진입니다. 이번 초등2부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갔어요. 첫째 날에 친구들과 같이 숙소에서 보내서 재미있었습니다. 첫째 날에 저녁예배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재미있는 수영을 했습니다. 이후 숙소를 정리하고 밖에서 바비큐를 하면서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예배 때 롤링페이퍼 하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셋째 날엔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냥 놀러 가자는 마음을 처음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 저녁에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저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편지를 썼는데, 나의 목표와 소망을 더 두텁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와 율동,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말씀시간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 시간이 재미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물대방동산



방은우 학생
(6학년)



김영미 집사
(초등3부 교사)

우리 교회에서 한 시간 반 가량 떨어진 김천 봉곡교회에서 초등3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31일(목) ~ 8월 2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였습니다. 아이들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떠올리며 묵상하고 행동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교사와 아이들 모두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한 달 앞두고 교사들은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을 모았고, 주제 찬양과 율동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당일에는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출발하여 김천 봉곡교회에 도착했고, 개회예배에서는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이 함께 오셔서 축도와 격려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모두 큰 감동을 받으며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은 오리엔테이션, 영화관람(킹오브킹스), 보물찾기, 조별 연극 발표, 코너학습, 물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찬양과 기도회, 캠프파이어, 아침 큐티, 파송예배(세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0여 명의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든든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장난스럽고 짓궂은 모습이 익숙한 아이들인데 기도회에서 두 손 모아 진지하게 기도하고, 세수식에 집중해서 참여하며, 기쁨으로 목청껏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3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면동산

중등부 여름수련회 소감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나길



이명규 성도
(청년부 38기,
중등부 교사)

유난히 무더운 여름, 7월 27일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대구제일교회 중등부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경주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아이들은 기도와 찬양,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즐거움과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나의 이야

기'와 성경 인물 상황극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고, 직접 성경 속 인물이 되어보면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공동체에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QT와 특강 시간에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귀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경주월드 물놀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기뻐하라'처럼,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물단동산





나(하나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 하리니...



박예담 학생
(1학년)

| 기간 : 2025년 7월 18~20일(금~일)

| 장소 : 보현자연수련원 (경북 영천)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 28:20)"

이번 고등부 여름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8:20'이었고 주제는 '동행'이었다. '하나님과 동행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엔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나는 그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었다.

출발일(7월 18일(금))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버스 안은 너무 조용해서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모두 예배당에 모여 첫 예배와 '통행 1'(저녁집회)을 드렸다. 설교 주제 찬양인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를 찬양하였다. 멀리 호남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이연숙 목사님의 온화한 미소와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목사님은 아프리카와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섬기시기도 하신 분이셨다. 말씀 중에 목사님이 예전에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열차로 이동 중에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과 함께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이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동행 1'(저녁집회) 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조별 모임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내일 저녁에 있을 ‘별·빛·밤 활동’(비블리오 드라마)에 필요한 배역과 대사를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7월 19일(토))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아침 ‘동행연습’(말씀묵상)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6~20절을 묵상했다. 1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한 후 깨닫고 느낀 점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속에 있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 생각보다 재밌었고 좋았다. 오전에는 목사님의 지도 아래 학생 전원이 MBTI 테스트를 봤다. 검사 후, 우리들은 성격적 특성별로 5그룹으로 나뉘어서 i)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ii) 4박5일 해외여행 플랜 짜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조장이 그룹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양하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하고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후에 예정된 일명 ‘보현파크’(물놀이)는 비로 인해 취소되어 속이 많이 상했다. 대신 요즈음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주제(예; 신은 왜 존재하는가?)를 가지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윤정용 목사님이 직접 진행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에도 ‘동행 2’(저녁집회)를 가



졌다. 고백교회 김덕홍 목사님이 출애굽기 (32:1~6) 말씀을 가지고 뜨거우면서 한편으로 논리적인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다. 문제(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옴)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인간 모세를 바라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물질적 풍요, 압박한 학업과 시험, 교우관계 등)만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련회 기간동안 그 동행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 수고하신 목사님들, 선생님들, 찬양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물댄동산



청년1부 여름수련회 소감문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찾아서



조혜지 성도
(청년1부 38기)

저희 청년1부는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Just Breathe>라는 주제로 통영 연대도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이사야 40장 29-3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재정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집회 시간에 이해준 목사님께서 던지신 ‘우리는 어떤 쉼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며 마음을 돌볼 틈도 없이 살아가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쉼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곳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

법이고 지혜임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강을 통해 나, 너,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마음을 담아 답장을 적어 내려가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다정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김진성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중심**

을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과 본질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함께 보내셨던 목사님과 부장님들, 그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한 곳에 모인 시간을 통해 이 믿음을 저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한번 더 다짐했습니다.

스무 살부터 계속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참여했지만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으로 작년부터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 오랜만에 공동체 지체들과 온전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내 행복했습니다. **먼저 나서 돕고 섬기는 작은 손길들을 보며 공동체를 향한 각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꼈고, 청년의 때를 이런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지 다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청년1부에서의 마지막 수련회라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우리 품공동체의 새로운 모습들도 더 기대하게 되었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가끔은 막연한 불안과 걱정들이 찾아오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작은 한 걸음들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며 매일을 살아가려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어 잘 달려갈 수 있음**을 다시 되새기는 여름수련회였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먼 곳까지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김준호 담임목사님, 수련회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한 우리 임원단, 수련회 내내 청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겨 주신 이해준 목사님, 박해수 전도사님, 이금환, 정청기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청년들에게 다정한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전정희 성도
(청년2부 26기)

청년의 때의 끝자락을 걷다 문득 돌아봤던 발자취에 주님과 함께였던 시간보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며 땅만 보며치고 나가기에 급급했던 어리숙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발견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재조명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Just Breathe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막연하면서도 분명한 이끌림에 시작된 8월 14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하나님과의 추억을 나뉘보겠습니다.

고단하고 무더진 일상을 잠시 접어둔 채 떠난 성주에서의 첫날, 맑고 아름다운 신비의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용 못할 위업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과 산,

하늘의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경관에 폭 적셔들 때쯤, 김준호 담임목사의 개회에 배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과 이후의 과정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든든함과 방향성을 확인하며 남은 시간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과 육에 풍성하게 공급되었던 야외쿠키와 성경적 가치관 특강, 진정한 쉼과 회복에 관한 말씀시리즈, 에너지가 차오르는 찬양집회, 몸과 마음이 쿨다운되는 감성카페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하나하나 저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은 저의 교만과 경솔함을 잠재우시고, 오로

지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공동체와 자유롭게 융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쉼을 누리는 가운데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숙연함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얼마나 강력한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보내셨는지 실감하면서 감사와 감동의 찬사가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저의 미흡함을 아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상처,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올 미움에 대한 관점을 돌아보게 해주셨고, 세상을 디디면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기초체력을 기르는 법을 알게 된 만큼 앞으로의 신앙의 결이 종교적 열심보다는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 물뎀동산



방글라데시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박선미 피택권사

아썰라무알라이쿰(평화가 있기를)

이 말은 방글라데시의 인사말이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아썰라무알라이쿰’라고 인사하니깐 웃으며 반가이 맞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의료와 미용선교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6명의 팀원들과 함께하였다.

2025년 7월 21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마당에서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많은 성도들의 응원에 힘입어 출발하여 현지시간으로 다음날 새벽 3시경 다카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다. 여기저기 분산해서 놓아야 했던 의료물품들을 진료과별로 정리하고 숙소로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8시 40분에 천사 메디컬센터에 도착하여 각자의 진료할 자리를 만들고, 재빠르게 세팅하여(진료, 약제실, 혈압체크, 미용) 맡은 일들을 시작하였다.

2010년도에 방글라데시에 의료선교를 왔을 때는 천사 메디컬센터도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메디컬센터 내에서 이틀 동안 의료봉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기사용량이 많으면 전

기가 끊겼는데 자주 그런 일이 있다고 하였다.

다카에 있는 메디컬센터에서는 하루에 200 ~ 272명 정도의 환자들이 왔다. 우리의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 잘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였다.

치과는 치아관리가 안되어 발치를 많이 하였고 안과는 인공누액이 필요하고 30대나 40대들이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첫째 날 안과 진료받고 눈이 좋아졌다는 사실로 인해 둘째 날에는 안과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재활의학과 내과외과는 어깨라든지 관절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슬림 특유의 낮동안 금식 후 야간 폭식으로 인해 위염환자도 있었다.

피부 질환도 많았는데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살쥔 카메즈(하나의 턱을 따라 나란히 떨어지는 바지와 뒤로 길게 내려오는 티셔츠)나 사리(긴 천으로 몸을 감아 입는 옷)를 입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눈만 밖으로 내놓고 그 외엔 천으로 다 덮고 진료 보





러 왔었다. 그런 기다란 천들에 가려진 그들이 갑자기 몰릴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많은 인파로 인해 실내의 온도는 몹시 더웠다.

젊은 환자들이 많았고 아이들이 같이 오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진료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꼈다.

미용팀은 건물내부가 아닌 길거리 아열대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미용봉사를 했다. 골목길에서 책상이나 테이블이 없어 땅바닥에 기구를 놓았다 쥐었다 하는 여건에서도 기쁘게 봉사하는 그들의 얼굴(머리카락과 땀이 섞인 얼굴)에서는 하늘나라 영광의 빛이 비추이는 것 같았다.

사역 셋째 날에는 다카에서 1시간 정도 차를 이용하여 에버그린 스쿨에 갔다. 그 학교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의료장비와 기타 물건들을 빠르고도 정확하게 세팅하여 그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한مام이 되어 기쁘게 섬겼다.

그리고 매일매일 의료선교 현장에서 홍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이 통역을 담당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었다. 쉽고 후덥지근한 더운 날씨에도 홍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시는 선교사분들의 환한 미소로 섬겨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다.

사역 마지막날에는 홍두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로뎀 파운데이션 장애인학교에도 방문하여 그곳의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교제와 기도, 찬양의 시간을 은혜가운데 보냈다. 말쑥과 찬양을 큰소리로 따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감동이었다. 홍선교사님은 유튜브채널 "JOGBD(jesus only gospel Bangladesh)"을 통해 어린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뚜렷한 관광지가 없는 방글라데시에는 돌과 산이 없고 320개의 강이 있어서 물의 나라 라고 한다. 홍수가 자주 나고 홍수 나면 1/3 이 침수된다고 한다. 인구는 1억 7568만이며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이고 기독교는 극소수라고 한다. 방글라데시에 이번 의료선교를 통하여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높이 울려 퍼지길 기도한다. | 물대동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2025 미얀마 단기선교
the wave
MOVEMENT
07.25~08.01



최형규 성도
(청년부 36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 2장 14절

† 기도제목

- 1 미얀마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 2 준비한 선교의 일정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귀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소서
- 3 준비한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지게 하소서
- 4 선교팀의 방문이 현지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의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현지사역과 좋은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 5 선교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선교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소서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미얀마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해준 목사님을 비롯해 함께한 모든 단기선교 팀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미얀마가 선교지로 확정되었을 때, 작년에 미얀마에서 감사와 은혜로 다녀왔던 기억과, 똑같은 사역지에 다시 갈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든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겠지 하며 뒤늦게 선교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청년들이 반갑기도 하고 이제 본

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설렘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경훈 집사님의 요청에 따라 가구 제작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세명교회에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다른 팀원들과 떨어진 채로 선교사님이 생활하시는 센터 밑 주차장에서 집사님과 현지 청년인 다잉메통과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에 서툴렀고, 한국과 다르게 상상 이상으로 습하고 좋지 않은 작업환경 때문에 예상했던 작업보다 적게 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채로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미얀마에 다시 오지 못할 것 같고, 청년의 때에 마지막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내가 뭐든 하나라도 더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과 첫 사역에서 생긴 아쉬움까지 겹쳐 그 마음들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 괴로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더 이상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둘째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자기 전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제 욕심이라면 저를 한번 터치해주세요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이 변할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기도한 그 밤에 바로 꿈을 통해 크게 한번 터치해주셨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가 하는 모든 사역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최선을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자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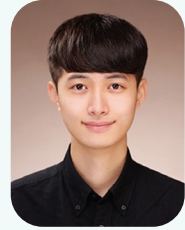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남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수요기도회 때 현지어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길지 않았고 많은 고민 끝에 곡 순서도 여러 번 바꾼 터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시작되고 저의 서툰 현지어실력임에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미얀마 성도님들을 보고 저 또한 한국에서 했던 그 수많은 찬양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 함께 찬양할 수 있었고 찬양으로 단기선교팀과 미얀마 성도님들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회 시간에 수많은 기도 제목과 1시간이 넘는 오랜 기도회를 통해 이 성도님들이 단순히 물건과 물질을 위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중 가족 중에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갔지만, 연락이 오랫동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이뤄지기를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사역은 센터에서 많은 사역을 했기에 세영교회와 그 주변 마을을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아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휴식 시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현지 이동 수단인 동베이(오타바이 택시) 기사님까지 붙여주셔서 마지막으로 세영교회를 비롯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센스로 교인 집 몇 군데를 들러 마지막 인사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아쉬운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의 부족함을 더 느낄 수 있었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원들과 함께이기에 준비하고 사역하는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을 떠나 다시 한국으로 왔지만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2025년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단동산



화마로 무너진 안동 신덕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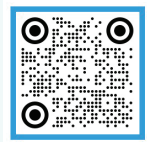


박상은 성도
(청년부 36기)

여름이 한참 시작되려던 2025년 7월 11~12일, 청년부가 마음을 모아 국내 선교를 안동 신덕교회로 다녀왔습니다. 안동 신덕교회는 지난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복구로 우리 '품공동체'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국내 선교 사역으로는 신덕교회 및 신덕리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교회 여름 성경학교, 벽화 미화 작업, 만찬, 저녁 집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여전히 산불 피해로 인해 교회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벽화 작업은 교회 주차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미리 하루 전부터 페티 작업을 진행한 후, 밑그림과 더불어 최종 벽화 작업까지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 돌아봄을 통해 마을을 미화하고, 어르신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바비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부 찬양팀의 준비로 금요일 저녁 집회를 진행하였고, 다음 날 새벽기도회까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성경학교와 어르신들 일손 돕기를 통해 마을의 어린이까지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신덕교회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저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일하셨음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여러 후원과 기도를 보태 주신 성도님들과 국내선교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모든 청년부 팀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금번 국내선교사역은 "대구 제일교회 품공동체" 유튜브를 통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품공동체 유튜브

물결동산



콜롬비아 푸사신학교 사역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대한민국보다 약 열한 배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과 고도로 인해 열대, 아열대, 상춘 기후가 공존합니다. 남미 인디언, 스페인 계 유럽인, 그리고 아프리카 후손이 함께 어우러진 다민족 사회이며, 국민들은 매우 낙천적이고 외국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친절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내전, 선교사 납치 등으로 여행 금지 국가였으나, 최근 평화 협정 등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개신교인은 약 9%이며, 그중 오순절 교회가 개신교회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부 교회는 무분별한 은사주의와 헌금 강요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 상황이지만, 국민 다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므로 복음 전파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콜롬비아 장로교는 약 160년 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납치와 암살, 현지 지도자와의 갈등 등으로 현재 미국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철수한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는 약 30년 전부터 선교사역을 시작했으며, 현재 약 여덟 가정의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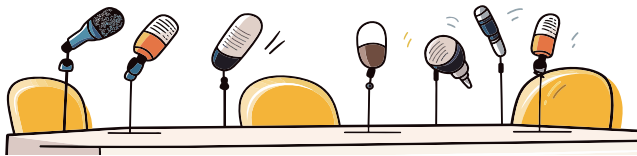


이필창 선교사
(콜롬비아)

저는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세계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아내 김선진 사모, 딸 이나은(당시 4세), 아들 이재원(당시 2세)과 함께 12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푸사신학교는 보고타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해발 1900미터의 산기슭에 있으며, 작은 산골 신학교를 통해 지난 30년간 약 1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현재 약 25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설교자가 말씀을 배우며 신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말씀 교육과 신학 훈련 없이 사역하는 상황입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과 신학으로 훈련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콜롬비아에 행복한 성도들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같이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이 땅 콜롬비아에 맺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물뎌동산



홍보출판부 취재기자를 하면서...



전용철 안수집사

주일 아침, 아직 어둠이 남은 5시 20분. 이 시간은 내게 가장 긴장되는 때이자,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첫 열매와도 같다. 갈릴리 찬양대 연습에 맞추어 눈을 뜨고 몸은 잠에 붙들리려 하지만 피곤함보다 주일 교회에서의 섬김과, 예배의 설렘이 마음을 깨운다.

나는 대구제일교회에서 교회학교인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며 값없이 교육부를 섬겨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 은혜에 감사해 청년부 시절 별다른 망설임 없이 유년부(현 초등1부) 봉사를 시작했고 30년간의 섬김기간 동안 세 자녀를 초등1부에서 믿음으로 키웠고 가장 큰 영광인 30년 근속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

초등1부에서 섬김을 마무리하던 날은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아쉬움이 교차했고 그 때의 기억은 2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 후 교육부 부장을 맡으셨던 강영우 장로님의 권유로 총무부 부부장으로 2년간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약 10명의 총무부실행위원과 함께 주어진 사안을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의 살림을 세밀히 살폈고 때로는 많은 안건과 사역으로 바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섬김이 곧 순종이며 예배임을 배웠다. 이후 재정부와 홍보출판부를 담당하게 되신 강장로님의 권유로 홍보출판부 기자단을 조직하게 되었고 물댄동산을 통해 교회 이

야기나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소개하는 것을 기자단의 목표로 삼고 기획/출간하게 되었다.

2024년부터 기자단인 이금환, 왕예진, 이수경 집사님과 함께 '고것이 알고 싶다'라는 꼭지를 기획·취재했고 지난 물댄동산에 "명랑청년,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가되다"로 김준호 담임목사님 부임 소식과, "새가족부를 소개합니다"로 새가족부 사역을 비롯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들을 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에 평소보다 2백부 더 발간해 물댄동산을 천2백부 발간했고 완판되는 기쁨도 홍보출판부와 기자단 모두 누렸다. 경조부의 부활동산소식, 주일 제일교회 영상통신부의 일과 등 다양한 부서를 취재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 현장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

주일 아침 일찍 시작된 하루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감사와 기쁨 속에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앞으로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자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물댄동산



우리는 정원사



이정재 은퇴장로

우리는 제일이라는 큰 숲의 작은 정원입니다.
숲속에는 고요함 속에 새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등
여러 소리로 숲을 가꾸어 나갑니다.

거기에는 아픈 자, 병든 자 모두가 위로받기 위해
숲을 찾아 새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
위로를 얻으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받은 이는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다 보면 숲이 그리워지고
나무와 풀, 꽃과 한몸이 되어 호흡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숲은 두 팔 벌려 맞이합니다.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위로함에 숲의 소리에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이런 숲의 정원사입니다.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가꾸는 숲에는 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나의 손길로 작은 정원이 작은 숲이 되고 큰 숲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은 이런 정원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쁨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앤동산





대구기독교원로원을 아시나요?



양흥철 장로
(원로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로원은 무슨 시설이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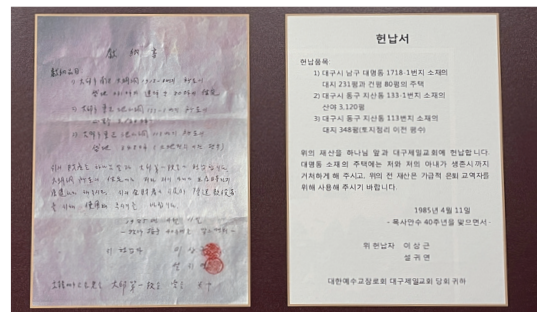
대구기독교원로원(이하 원로원)은 우리 교회의 부속 시설로서 (고)이상근 목사님의 사재 헌납으로 건설했던 은퇴교역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입니다. 20가구 규모이며 경산시 진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기독교원로원 전경(사진제공: 권영수 안수집사)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신앙의 위인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곁에 그런 위인이 존재하였으며 그 흔적과 유산을 우리 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음은 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같은 사회 복지제도가 없던 시대에 (고)이상근 목사님은 은퇴교역자들의 곤고한 삶을 보시고 그분들을 위한 공동 주택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결국 이것을 자신의 헌신으로 이루셨습니다. 목사님의 회고록(등대가 있는 외딴 섬) 일부입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부터 저는 은퇴 교역자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바친 교역자들의 노후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 교역에 보다 전념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중략).... 그러던 중 1985년 4월 11일, 제가 평양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만 40주년을 맞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제일 교회에 바쳐 앞으로 원로원을 설립하는 기금으로 써 달라고 의탁하였습니다.”



(고)이상근 목사님 재산 헌납서

물질 우선주의가 보편적인 시대에 4명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교회에 헌납하기는 비록 목회자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님을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헌납하신 재산은 목사님이 아끼시던 대명동 사택, 지산동 임야

등 약 3700여 평에 달합니다. 특별히 유학 중인 자녀(연동교회 이성희 원로목사)가 있었고 모든 자녀들이 물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전 재산을 헌납한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고)이상근 목사님 소천 후에는 (고)설귀연 사모께서 원로원 작은 평수에서 기거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당회 산하 원로원이사회(현 원로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를 해왔으며 운영 비용은 원로원 자체 기금 외에도 교회 경상비에서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로원 시설은 준공된 지 만 30년이 되었으며 만만치 않은 수리 보수가 계속 될

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재원과 유능한 기술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입주한 원로 교역자들에게 보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을 섬긴 (고)이상근 목사님의 후손들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마10:42 새번역) | 물대동산

• 원로원 설립 배경

대구제일교회에서 34년간 시무하고 1991년 2월 은퇴하신 (고)이상근 목사께서 1985년 4월 목사안수 40주년을 맞아 전 재산을 대구제일교회에 헌납하셨고 평소 목사님의 숙원대로 은퇴교역자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대구기독교원로원을 설립함.

• 현 황 : 부지면적 4,529평, 건축연면적 577평(3층 건물, 전체호수 : 20호 중 28평형 14세대, 19평형 6세대)

• 경과

- 1985. 04. 대구제일교회 당회장 (고)이상근목사 원로원 설립을 목표로 대구제일교회에 사재 헌납 (3필지, 약3,700평)
- 1988. 12. 원로원 기지 부지 8,910평 매입(경산군 진량면 봉회리)
- 1989. 05. 원로원 운영계획 수립(대구제일교회 당회)
- 1992. 02. 건축설계 의뢰(미래설계)
- 1993. 05. 건축허가(경산군)
- 1993. 09. 건축공사 계약(삼익주택)
- 1994. 06. 02. 기공예배
- 1995. 11. 14. 원로원 봉헌예배
- 2014. 11. 개별 가스난방 보일러 공사
- 2019. 12. 엘리베이터 설치 준공
- 2021. 06. 정류 이상근목사 대구기독교원로원 설립기념비 제막



대구기독교원로원 설립기념비



교회의 얼굴 주차봉사부!!

주차봉사부는 교회의 얼굴이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부서입니다. 주일예배는 물론 각종 행사 때 차량주차의 편의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며,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주차봉사부원들의 일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주차봉사부원들은 오전 8시 50분, 짧은 기도 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다짐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새롭게 합류한 봉사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주차 현황과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교회 정식 주차 면수는 약 140대이지만, 효과적인 주차 안내를 통하여 교회 마당 50대, 교회 주차장 180대, 동산병원 250대, 신명고등학교 80대 등 총 56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고등학교 80대는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근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여전히 예배를 위해 오시는 분들과 교회 식당 또는 이스트힐 이용 후 귀가하시는 분들 간의 차량 동선들이 겹치며 여전히 혼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3. 주차봉사부의 봉사 구역과 봉사 시간도 궁금합니다.

주차봉사부의 봉사 구역은 교회 마당 및 주차장, 동산병원, 신명고등학교, 이스트힐과 교회 진입로 등입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2부, 3부 예배 전 40분 (2부 - 09:00 ~ 9:40, 3부 - 11:00 ~ 11:40) 그리고 주일 2부, 3부 예배 후 20분 (2부 - 10:30 ~ 10:50, 3부 - 12:30 ~ 12:50) 입니다.

위와 같은 봉사 구역과 봉사 시간을 위한 필수 봉사 인원은 각 예배 마다 15명이 필요하지만 봉사 인원이 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 교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첫째. 교회 마당이 협소한 관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아들과 함께 하는 성도들 외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교회 마당

에 차량 진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차 건물의 옥상 주차장은 7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비어 있더라도 75세 미만 성도님께서는 신명고등학교 내지 동산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회 봉사 등으로 오후 예배까지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께서는 동산병원이나 신명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면 교회 주차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존직 직분자께서는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외부 주차장(동산병원, 신명고등학교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의 경우, 교회, 인근 주차장과 통행로가 차량뿐만 아니라 교인, 관광객 등으로 몹시 혼잡하니 반드시 서행하여 주시고 방향지시등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영아 동행, 새 가족 등)으로 교회 마당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에는 주차증을 반납하신 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신명고등학교나 동산병원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앞으로의 교회 주차 전망을 말씀하여 주세요.

신명고등학교 내 주차구역 확보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동산병원의 아동병원 공사로 주차 면수가 현재 250면에서 150면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중 주차가 불가피하는 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

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인 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인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 안내에 잘 협조하여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훌륭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주차봉사부원들의 각오 말씀 등을 부탁드립니다.

주차봉사부는 “교회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 아침 주차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봉사를 통해 예배를 돕고 주님께 충성한다는 다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님들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부원들이 폭염과 한파에도 고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대구제일교회의 한 식구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주차봉사부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주시는 격려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수시로 간식을 제공하여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봉사부원이 늘 부족하오니 남녀 성도 구분 없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물대동산





변화하는 시대, 교육의 새로운 길



현재 대구제일교회 교육부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164명의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들과 아침부터 일찍 교회에 나와서 부서실을 정리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예배실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제일교회의 부흥을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하신 분

교육부 총괄 및 청년부 : 이해준 목사

영아부 : 신에덴 전도사, 유아부 : 김현진 목사, 유치부 : 박평화 전도사

초등1부 : 윤다은 전도사, 초등 2부 : 배성진 목사, 초등 3부 : 이승찬 전도사

중등부 : 박예찬 전도사, 고등부 : 윤정용 목사, 청년부 : 박해수 전도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육부 사역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 첫 번째 사역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배성진 목사 첫 사역했던 교회가 아버님께서 개척하셨던 교회였어요. 특별히 교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또 바른 길로 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배움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정용 목사 첫 사역지에서 제가 이제사 많이 느끼는 것은 '교회는 역시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부서를 사랑하고, 누군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또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이란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그건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를 더 섬기고 또 내 시간을 내어 놓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는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전도사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네요.



Q 최근에 대구제일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박평화 전도사 전체적으로 지금 영유아, 유치부, 초등 1부까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 부흥한 게 많이 느껴져요. 영아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예배실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부흥했거든요.

영아부, 유아부를 통해서 신앙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유치부 예배에 대한 소중함으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에게는 신앙적 성숙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초등부로 가기 전 단계인 유치부에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알려주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오감 예배’를 드립니다.

오감 예배는 기존의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퍼포먼스 하는 예배입니다. 그냥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맛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몸을 움직이기도 하는 활동 위주의 예배로써, 목회자가 예배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아이들이 예배 속에 들어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귀가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예배가 됩니다. “조금 놀다 보니까 예배가 되었네.” “놀다 보니 예배네”가 되었습니다. 마치 치료실 현장처럼 예배가 진행되는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치부 예배를 놀이 치료처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없을까 싶어 치유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놀이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예배가 드러지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언어적 측면으로, 놀이적이고 미술적인 측면으로 아이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윤다운 전도사 저희는 새로 오는 가족들을 **환대(歡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지금 있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예배 구성원으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피곤한 주일 아침에도 서로가 최대한 아이 하나씩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배성진 목사 초등 2부를 맡은 지가 딱 1년 됐는데, 큰 변화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점점 빨리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교회적인 수치로 봤을 때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는 사춘기가 좀 빨라지다 보니, 신앙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와 같은 현상들이 예전에는 중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만날 볼 수 있어요. 다행히 저희 부서 아이들은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며 큰 변동은 없지만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잘 보듬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ㅎㅎ

신에덴 전도사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영아부 선생님 중에는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 동역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니 부모님과의 소통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기도가 부모님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거듭 들어요.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영아부가 친절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쌓입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영아부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시간까지 나오는 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어쨌면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영아부 교사들의 **기도의 팀웍**이 되게 좋으세요!

김현진 목사 유아부도 5년 전 코로나 끝나고 제가 왔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부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환대의 문화**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잠깐 들렀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 왔을 때 ‘가볼 만한 교회가 어디 있지?’ 하다가 유학을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친정이 여기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런 분들이 꾸준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의 환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친구라도 이름을 기억하고 안아주고 그 아이가 다시 왔을 때 어려워하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이죠. 현재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환대의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아주 즐거워해요. 한 가지 예로, 어떤 친구가 성경학교 때 못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잠시 왔다 갈 정도로 교회를 즐거이 오니, 그 아이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교사들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하고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사랑받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느끼니까 자꾸 오게 되고 부모님한테도 가자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준 목사 단편적인 예지만, 교육자 사무실이 초등 1부 앞에 있다 보니 보이는 사실인데 부모님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초등 1부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는 날이면 2부 예배 끝나고 오셔서 복도에 짹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걸 보면 ‘아!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훨씬 높아졌구나’ 느끼게 됩니다.

Q 교회가 주일학교와 청소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승찬 전도사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 학교라고 하면 소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이 어떤 것이고 예배가 무엇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하면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춘기가 더 빨리 찾아오잖아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게 외부 강사 초청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될 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봉사하는 선생님들이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뿌듯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용 목사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청소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뭘 지원해야 할까?’ 했을 때 **‘삶의 예배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보통 토요일도 11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서 12시쯤 잠을 자고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교회를 왔다가 11시가 되면 또 학원으로 갑니다. 그런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은 예배를 힘들어해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수련회를 가는 것도 자신들의 일정 때문에 피곤한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제 삶 속에서 성경을 따로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아이들을 섬기겠지만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이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본다면 아이들 또한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기도 시간만큼은 지켜야지’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위해 교회와 가정의 **아이들의 진정한 자원(資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고등부도 지금 다른 부서와 같이 제자 훈련 같은 것을 하지만 저희는 사실 제자 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현재 주중에 아이들처럼 멘토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자’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학교 시작하자’ 라고 주중에 계속해서 연락을 해 주는 그런 멘토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제 부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생각 해봤습니다.

배성진 목사 시설과 공간의 노후화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음향장비와 시스템 예를 들면, **마이크와 스피커의 부족**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방도 더위의 문제가 있는 편이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박해수 전도사 학생들의 ‘내 교회’라는 인식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련회 참여도 **부모님의 권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여건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막상은 해받는 수련회 자리에 학생이 참여하지 못할 때면 아쉬움이 큼니다.

윤다운 전도사 시내 중심에 위치한 교회이다 보니 같은 학교 출신의 아이들보다는 각기 다른 학교 출신의 아이들이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다 보니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아이들의 공동체성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평화 전도사 장애인을 살피는 프로그램과 여건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환대(歡待)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색하고 낯설다 보니 떠나가고, 장애인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돌봄보다는 한두 사람의 봉사자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

니 그 봉사자가 떠나게 되면 장애인도 떠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역자, 교사들에 대한 전방 개발과 교육,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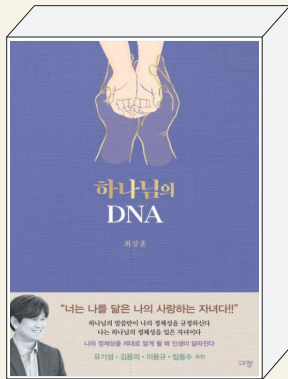
신에덴 전도사 주차공간과 동선에 힘듦이 있습니다. **유모차와 어린아이들이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박예찬 전도사 청소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 교회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할 것은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마음 터놓고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 문을 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단기 간의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교회와 교역자, 교사들이 아이들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꾸준히 친교와 교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지원한다면, 청소년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신앙 안에서 부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가만히 앉아 드리는 예배가 아닌 활동하고 어울리는 예배임에도 실내회망 온도가 24도(실제 온도 29도)인 것은 **땀을 흘리는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ㅎㅎ

이렇게 교육부 사역자 분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고민과 실천은 내일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교육부 사역자들의 발걸음이 모여 이루는 숲은 분명 푸르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제일교회’가 우뚝 서 있기를,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 지금보다 10년 20년 후가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독려하고 기도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물댄동산**





- ▶ 도서명 : 하나님의 DNA
- ▶ 저 자 : 최상훈
- ▶ 출판사 : 규장
- ▶ 출간일 : 2024년 7월 30일

저자 소개

저자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화양감리교회 담임목사이며 사인미니스트리 대표로 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 책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놀라운 능력과 권세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정체성을 도장처럼 새겨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정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 능력,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DNA(Declare N Align, 선포와 정렬)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DNA가 이미 장착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셨는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순간부터이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오래 머물며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소년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좋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엎드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이자 겸손하고 깊은 기도자였다. 소심하고 부끄럼을 잘 타던 어린 소년이 깊은 성령을 체험한 후,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시며 주와 합한 자는 한영(고전 6:17)이라는 ‘영의 정체성’이 깊이 각인(刻印)되는 결정적인 시기를 겪으며 참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그 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있겠다고 결심하여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선교사 7년, 알래스카에서 목회 7년 그리고 벤츄라 이민 목회를 거쳐 지금은 화양교회를 섬기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Declare N Align, 선포와 정렬), 즉 하나님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에 결부시켜 활성화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Declare),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렬하기만(Align) 하면, 하나님의 성품, 능력, 권세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의 정체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책속의 픽(Pick)

■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영이 되었다. 한영인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다(갈 3:27).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한다.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의 역할과 권세를 갖게 된다. 교통경찰이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본 적은 없을 것이다. 경찰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은 경찰의 권위에 따르게 되어 있다. 옷이 곧 그 사람의 권세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와 합한 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로 옷 입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DNA에 담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존재로 규정된 것이다. p.84-85

■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맞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의인 된 정체성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래 의인이 되었던 자격은 애초부터 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어퍼함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것이 아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칭해주셨다. p.92

■ 하나님은 버거운 순종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은혜와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신다. 사명을 맡을 때 내게 버겁고 힘든 사람을 주시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려는 깊은 계획하심과

나의 지경을 넓히려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p.120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다.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골 3:1)라고 말씀하신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가치를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생각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인가?’ 계속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곧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p.154

■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삶의 현장에 나가야 한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영적 선포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나는 빛으로 옷 입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 외치면서 하루를 출발해보기 바란다. p.165

■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보호를 받고,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영적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이를 인식할 때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힘이 작동될 수 있는 것이다. p.254

■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를 풀어내는 방법은 ‘Declare’(선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며, ‘Align’(정렬), 즉 하나님 말씀에 정렬해 나가는 것이다. DNA라는 단순한 약자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깨달음을 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놀랍고 감사했다. 꾸준히 선포하고 정렬하는 것을 반복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더 풍성해지고 더 활성화된다. p.349 | 문세동산

장로 피택, 은혜의 여정을 걸으며



이금환 피택장로

연약한 저를 장로로 불러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택자 교육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제 발걸음은 주님의 손길에 이끌린 순례자의 걸음 같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부족함이 밀려왔으나,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을 절실히 깨달으며,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6·7월에 진행된 경북노회 피택 교육은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는 단순히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님들께서 강조하신 “대구제일교회의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을 들으며, 저는 한 교회만을 위한 장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세우는 사명에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과 책임으로 남아, 작은 걸음이라도 그 사명에 충실히 살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8월에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 교육의 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과 바람직한 장로상에 대해 다시 배우며, 장로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가르침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추천 도서 「장로의 헌신, 장로의 영광」을 통해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의식에 깊은 변화를 얻었고, 이를 통해 장로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물 떠 온 하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시고, 저는 그 뒤를 따르는 장로로 서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우고 기도한 피택 장로 동역자들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은 지식의 쌓임이 아니라 은혜의 체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 겸손히 서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로 준비해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이어지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교회 내 피택자 교육 또한 제게는 또 하나의 은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배우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제 안의 부족함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의 끝자락에서 단순히 직분을 맡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종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저를 불러 세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물대동산**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권사가 될 수 있기를...



배정은 피택권사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는 저의 가장 연약한 삶의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태부터 알게 하시고 유년 시절부터 청년의 때를 지나, 권사라는 귀한 직분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시절까지 고향의 작은 시골 교회를 다니다 역사가 깊고 선교의 범위가 넓은 대구제일교회를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132년 전에 세워진 대구경북의 모 교회로서 국내외 선교활동과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대를 바라보며 주변 이웃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뿌리 깊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섬길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제일교회를 섬긴 31년의 시간 속에, 영아부 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며 동시에 어린 네 자녀를 키워냈던 10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

기는 소명을 알게 하였고, 구역장으로서 이웃 성도들의 심방을 함께 하고 돌보며 나의 가정에만 국한된 개인 기도를 넘어 중보기도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여전도회 활동에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전국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도움을 전하며 주의 일하심과 살아있는 말씀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일 공동체에서 함께한 세월 속에 흔들리고 힘에 겨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열방에 일어나는 부흥을 느끼며 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말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먼저 섬기는 권사로 맡겨진 직분에 임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면동산

영적 간절함이 느슨할 때 찾아온 주님의 명령, “내 양을 섬겨라!”



표동철 피택안수집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밀려와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만 저는 유별나게 많은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로 도저히 넘어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하고 나서는 다시 영적 간절함이 느슨해지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만 할 뿐 긴장감이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흠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러한 직책을 가져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만들어 가시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다시 긴장감과 간절함으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는 마음으로 돌렸습니다.

예전과 같이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등 예배의 시간을 통해 찬양과 기도 시간이 참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로 하심에 감격해했던 과거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나의 과거, 나의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 미래에 어둠의 세력이 더 큰 파도로 밀려와 나를 넘어지게 하려 하실지라도 - 여전히 강한 하나님의 오른팔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지금 하루 하루의 삶 가운데 섬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되려 합니다. |물면동산

나라 지킴이를 위한 「6종 선물세트」



김상한 은퇴장로
(장로원로회 회장)

군인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그 세례식 현장 한가운데서 참으로 가슴 떨리는 경험을 하였다. 수많은 청년들의 함성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걷다가 교회당에 들어서니 모두 ‘실로암’ 찬양을 떼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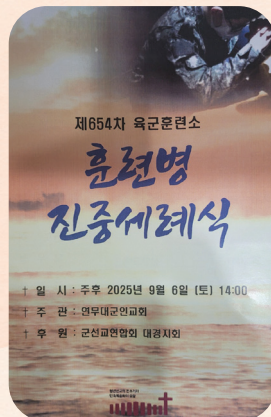
♫ 감감한 밤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 ♫ 각개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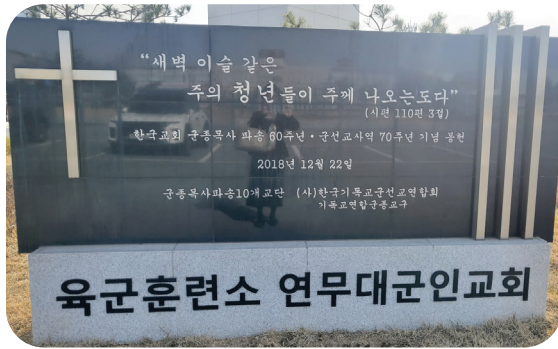
감동이 밀려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무대군인교회를 소개하자면, 매주 6천명의 청년들이 예배하고 연간 5만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이다.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지금도 누군가는 생애

첫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교회가 연무대군인교회입니다.

연무대군인교회는 매년 21회 진중세례식을 통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풁니다. 지치고 힘든 훈련시간 후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청년들도 세례식에 참여해 집례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세례식 선물로는 6종 세트(성경책, 십자가팬던트, ROKA티셔츠, 몽셀한박스, 코카콜라, 에코백)가 주어 집니다. 이 선물은 훈련병의 기억 속에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따뜻하게 남도록 준비됩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기도제목

1.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인이 되어가는 5주의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부대를 돌보시어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고 능률한 군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2. 오전과 저녁 훈련병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떠났던 청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무교였던 청년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3.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년 12만명의 장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 다니엘의 용사로 임명받은 청년들이 군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5. 연무대군인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사역팀 MCF, 여전도회와 군종병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성도와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물단동산



달력 사진에서 본 우리 교회와 여러 생각들...



이상원 성도

2025년 교회 달력을 벽에 걸어두고 있는데, 7월 달력 사진을 보다가 놀랐다. 대구 여자사경회 1,007명의 많은 여성성도들(1917)의 사진촬영을 한자리에서 시도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실을 영문으로 Taiku Women's Bible Class, 1917(18. 07 Women)로 표기 하였기 때문이다. 대구 여자사경회를 표기할 때 대구 여자를 일본말로 나타낸 다이큐여자(대일본식)로 대신하였는데, 처음부터 왜 Taegu Women's Bible Conference Movement 1917(18. 07 Women)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상함을 느끼고 2025년 달력을 새로이 1월부터 넘겨보니 11월에 나타난 사진에서 “아담스 목사의 젖소(1921)” 표제와 The old cow of the Adams Family, Taiku. 로 표기하고 있었다. 이 표기를

다시 번역을 한다면 “대구에서 아담스목사 가족의 늙은 젖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늙은 젖소(old cow)는 희망 잃은 식민 백성된 우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였다.

1917년과 1921년 안의와 선교사가 표기한 영문에는 다같이 조선의 대구를 대신해서 일본식 다이큐로 기록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대구 여자사경회가 있던 1917년에 교회에 출석한 부인들은 남편 성을 따라 김실이, 박실이 누구의 엄마로 불리지 않고 호적 이름으로 불러주던 교회가 좋았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잊혀져가던 자신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거명됨으로써,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대구 여자사경회에 참석한 부인들은 당시 대한제국에 대한 역사의 증인으로서, 1897년 10월에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는 대한제국이라고 한 역사적 사실과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멸망을 알았으며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통치하는 국치를 경험한 분들이다. 당시 국제정세로 볼 때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종식되지 않았으며,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하였고 1918년 1월 8일 미국 윌슨 대통령은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향후 31 독립운동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 조선총독부는 식민무단정치를 더욱 강화하여 감시·감독이 더욱 심해지면서 미국선교사들의 복음사업과 교육사업이 위축되었다. 안의와(Adams) 선교사는 1917년과 1921년 전후해서 대구제일교회 목사와 계성학교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국선교사였지만 정치적 불안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로 인하여 1917년 7월 18일 대구 여자사경회 사진과 1921년 아담스 목사의 집소 영어표시에서 대구를 다이큐로 표기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구 여자사경회 사진에 표기된 Women's Bible Class는 미국선교본부의 예산집행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행사내용이 성경공부가 주된 컨퍼런스였음으로 Bible Class를 사경회라 불렀다. 이는 [대구제



일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 안의와 선교사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1953년 계성고등학교 수양회가 대구제일교회 세번째 성전인 제일예배당에서 있었다.

3일간 학교수업 없이 3일간 새벽기도회와 낮예배에 참석하는 일정이 수양회였다. 1953년 계성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처음 경험하게 된 수양회에서 새벽기도와 낮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나는 제일교회와 처음 만났다. 그때 연희대학교 교목이신 교수님이 강사로 오셨다. 계성고등학교 전교생이 600여 명이며 1학년생은 180명이었다. 당시 제1예배당의 2층 본당은 바닥이 다다미로 되어 있어서 신주머니를 앞에 놓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본당이 넓어서 전교생을 수용하고도 여유가 있었다. 계성고등학교 수양회를 제일예배당에서 하게 된 것은 6.25전쟁으로 계성중고등학교 일부 건물들이 육군병원으로 수용되어 학교수업은 본관 옆 빈터 모퉁이에 마련된 가교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교생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은 대형교회인 대구제일교회 제일예배당 뿐이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구한말 복음사업으로 대구제일교회를 창립하고 교육사업으로 계성학교를 설립하였다. 복음사업과 교육사업이 하나의 뿌리로 엉켜있었기에 식민지의 어려운 시기마다 신앙의 중심이었던 대구제일교회가 폐교의 위기까지 갔던 계성중학교를 부둥켜안아 주었고, 6.25전쟁 때 계성중고등학교가 교실이 없어 힘들어할 때도 힘이 되어주었다.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끼리, 줄기끼리, 가지끼리 겹친 것을 연리근, 연리목, 연리지라고 하듯 대구제일교회 역사를 말할 때 계성학교가 함께 거론되는 것은 두 기관이 연리목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성전은 1994년 입당하여 현재 대구제일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달력 2월의 본당은 매일신문사 옥상에서 본 설경(2009). 4월은 동산병원에서 본 본당모습(2012). 8월은 계산성당에서 본 본당 모습. 10월은 본당의 가을경치(2008). 12월은 기념관 옥상에서 본 본당 야경(2024)이다. 나에게 본당의 위용은 창공에 우뚝 솟은 두 개의 십자가가 백미로 보였다. **그 십자가 중 하나는 그분의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일까? 다른 하나가 나와 우리의 십자가가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서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2025년 달력이 대구제일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보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물대동산**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축복”



변정자 은퇴권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 14-15).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남이 나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흐뭇해하고, 행복해하지만,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말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도, 오늘 스치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있었기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이 있었기에, 나의 삶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둘째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얻게 되고 셋째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대신 싸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에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승리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악과 마귀의 편에 서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물질적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대하 20: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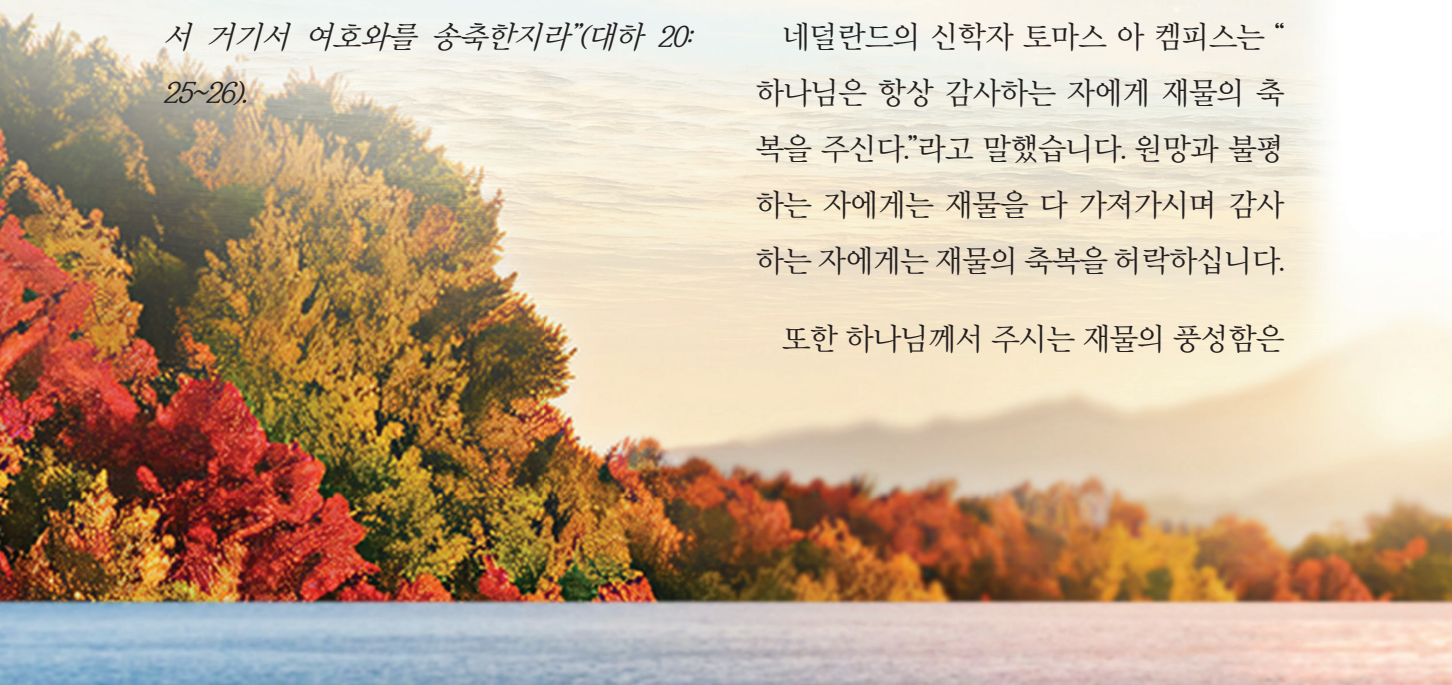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승리의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과 재물도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주시며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신 8:18). 능력을 받아야 재물도 갖고 건강하며 싸워서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 3:9-10).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토마스 아 캠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다 가져가시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풍성함은



그에 대한 가치가 세상적인 것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 19~ 21).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배려한 재물의 풍성함은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의미의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이 세상에 많이 쌓는 재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에 쌓아야 하는 재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와 재물도 얻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성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 다운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셋째,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강박하지 않고 너그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식하지 않은 너그름으로 표현되어 나타날 때 모두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기쁨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 4).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여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물대동산

성경공부에 AI(ChatGPT) 활용하기



김동현 은퇴안수집사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의 뜻이 궁금하고, 또 어떤 때는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상황을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 여쭙고 싶어도 늘 바쁘신 사역 일정 때문에 쉽게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결국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치 옆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 주며 대답해 주는 친구처럼,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배경지식을 보충하고 생각의 길을 열어 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ChatGP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직접 활용해 보니 성경공부에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어려운 구절의 배경 이해

성경 말씀은 역사문화지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왜 갈등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종교적·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쌓였는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본문을 다시 읽으면, 말씀의 무게가 한층 다르게 다가옵니다.

2. 원어와 번역의 뉘앙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에, 번역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AI에게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헬라어 단어의 용례와 의미를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3. 주제별 성경 정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가?”와 같이 주제별 질문을 하면,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관련 구절들을 모아 보여 줍니다. 덕분에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해석 비교

성경 해석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AI는 각 견해를 간단히 소개해 주어,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습니다. 신학 논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니, 초보자에게는 특히 유익합니다.

5. 묵상과 적용

성경공부는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쉽습니다. AI는 본문을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묵상 질문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져 주어,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물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AI의 대답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입니다.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AI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AI는 성경공부의 참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hatGPT뿐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 직접 사용해 보며 비교하면 성경공부에 더 풍성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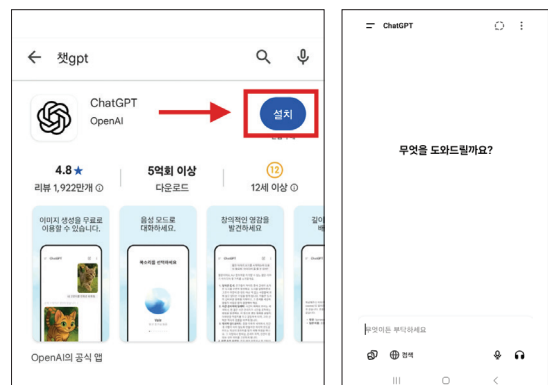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우리를 인도하는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도구를 지혜롭게 더해 간다면, 성경 읽기와 묵상은 한층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물론!**

※ 이 원고 또한 ChatGPT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AI도구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 (삼성 갤럭시폰의 경우)

앱 ‘Play스토어’에 들어가셔서 ChatGPT(오픈AI 개발) 또는 Gemini(구글 개발)를 검색한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버전입니다.



< ChatGPT 설치예시 사진 >

경계에서



이미영 집사

어머니가 급하게 물을 찾는다. 입이라도 씻고 일주문을 들어서야 한다는 자기 검열의 의식이 발동한다. 생수병을 건넜다. 한 모금 들이켜 물 양치를 한 후 꿀꺽 삼킨다. 나쁜 말로 지은 죄를 씻고 기도처로 들어가려는 어머니의 통과 의례다.

운동화 뒤꿈치를 잡아드리니 겨우 신발을 벗는다. 문을 쥘고 대웅전 높은 문지방을 넘는다. 의자에 앉기도 힘겨운 분이 무릎을 꿇어 온몸으로 절을 한다. 행여 넘어지기라도 할까 싶어 멀찍이서 지켜본다. 옆자리 새댁이 세 번 절하는 동안 가까스로 한 번 일어서는 것 같다. 나는 대웅전 천장 장식을 구경하다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보고 마룻바닥 이음새를 살피다가 다시 쳐다본다.

어머니가 삐걱거리는 몸을 추슬러가며 정성을 쏟는 사이 나는 통도사의 나무를 살핀다. 홍매화가 새봄을 알리는 절집이고 금목서 은목서가 가을 향기를 훑날리는 장소이다. 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탓하며 마음껏 절을 하지 못한다고 탄식할 때, 나는 홍매화의 절정이 지나서야 찾아오고 금목서의 만리향이 아직 퍼지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곤 한다.

돌아오는 차 안, 고찰 나들이에 흥겨워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옆집 희수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 말도 안 통하는데 자꾸 놀러 오라고 성화를 부린다. 308호 여자는 점심을 해놓고 부르는데 집이 지저분해서 먹으러 가기가 꺼림칙하다. 분명 두어 시간 전에 나쁜 말로 지은 죄를 씻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물 양치는 물 마시기로 끝이 나고 만다.

나라고 뽐족한 수는 없다. 말씀과 찬양으로 벅찬 예배가 마지막을 향해 달릴 때 축도가 끝나자마자 출입구가 뿔뿔이 전에 나가야 한다고 마음먹는다. 주저할 틈 없이 이스트힐로 달려가 문을 열어야지. 예배의 은혜는 급히 넣어두고 봉사라는 이름을 붙인 자리로 내달린다.

여름이면 밀려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봉사자보다 빠를 때가 있다. 커피추출기 위에 주문서가 다닥다닥 붙기 전에 재빠른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어 내자고 걱정한다. 서둘러 일을 해치우는 자세가 아니라 은혜로운 봉사의 자리로 만들자고 밀려오는 불안을 다독인다. 성도들이 자동 주문 기기 앞에

줄을 선 모습을 보는 순간 온갖 다짐과 결심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주문서를 들고 빨리 만들어 달라거나 언제 되느냐고 재촉을 할 때마다 불편한 심기가 쌓여간다. 봉사자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갑자기 생생하던 팔이 아파지고 다리가 무거워 온다.

교회학교가 마치자 아빠 품에 안겨 다니던 박 권사님의 손녀가 아장아장 걸어와 아기 단풍잎 같은 손으로 주문서를 올려준다. 아기 천사의 등장에 굳었던 얼굴 위로 미소가 번진다. 군대 간 최 권사님의 아들이 제대해 돌아왔다고 허리를 꾸벅하면 감사함으로 눈물이 펴 돈다.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트힐로 변지는 순간이 된다. 이스트힐에서 커피를 내리고 아이스크림을 펴 주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단단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들의 성장에 물 한 모금 건넨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진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며,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미 해체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대안이다. 따라서 교회건축공간은 공동체의 사역을 돕는 도구이며 환경이어야 한다.¹⁾ 교회 식구의 교제 공간으로 세상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회가 카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대구제일교회 카페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입소문이 나고부터 평일 이스트힐을 찾는 교회 밖 어르신들의 출입이 갈수록 느는 중이다. 선교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지만, 자칫 저렴한 음료를 파는 모임 장소로 변질될까 염려하는 마음도 커진다. 이스트힐에서 평일 봉사를 할 때 나로 인해 교회에 잘못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내 작은 실수로 예수쟁이를 비난하는 일이 생길까 조바심이 일기도 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스트힐은 교회인가, 카페인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교회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내가 봉사하는 날은 카페라고 부르고 교회로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쯤 되는 것 같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스스로를 교회로 여기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가 일주문 앞에서 물을 찾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친구의 뒷이야기를 할 때, 이스트힐에서 어중간한 나를 떠올려야 한다. 어머니의 물 양치를 떠올리며 나를 삼킨다. 주께서 제대로 빚어주시라고 손을 모을 수밖에 없다. 물대동산

1) 정서춘 지음 『세계의 교회건축순례』 도서출판 발언 2009



2025.05.18. 피택자 첫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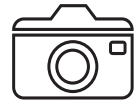


2025.05.24. 4남선교회 야유회 (충주)



2025.05.31. 국내선교부 선교유적지 탐방 (김제 금산교회 / 군산 구암동산)





2025.05.27. 무지개학교 야유회 (경주 천년의숲)



2025.06.01. 양인모 몽골선교사 선교 보고





2025.06.14. 안수집사회 야외예배 및 역사탐방 (부산 초량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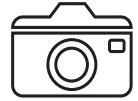


2025.06.15. 청년부 쪽방 나눔(2차)



2025.06.19. 제32회 여전도회 수련회





2025.06.22. 제51회 여전도회 6.25 금식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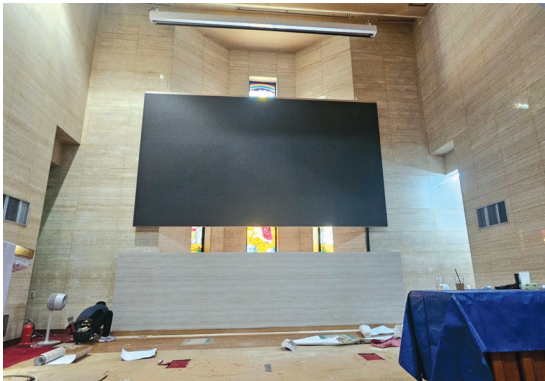


2025.06.28. 새가족 환영잔치





2025.06.28. 본당 LED 스크린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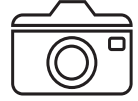


2025.07.06. 성찬식 (맥추감사절)



2025.07.07. 대구지역 4개노회 남선교회연합 조찬기도회





2025.07.20. 미얀마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발대식



2025.07.29. 청년부 미얀마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회



2025.08. ~ 대구제일교회 홍보영상 제작





2025.08.08. 금요기도회



2025.08.17. 제4남선교회 역사관 방문



2025.08.23. 경북노회 장로피택자교육 수료식





2025.08.27. 여전도회 찬양대 수련회



2025.09.16. 의료선교부 야외예배



2025.09.20. 부활동산 벌초





2025.06.08. 윤다니엘 첫 출석 (부: 윤호정, 모: 신에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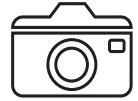


2025.06.15. 나이엘 첫 출석 (부: 나현수, 모: 김선희)



2025.06.22. 구한솔 첫 출석 (부: 구주환, 모: 한보라)





2025.07.06. 장하랑 첫 출석 (부: 장인수, 모: 류하은)



2025.09.07. 배이연 첫 출석 (부: 배정진, 모: 이민정)



2025.09.07. 배이레 첫 출석 (부: 배정인, 모: 황슬기)





25. 09. 14. 신재민 첫 출석 (부: 신민영, 모: 박주은)



25. 09. 28. 심지민 첫 출석 (부: 심규민, 모: 김지영)



25. 09. 28. 신유이 첫 출석 (부: 신병수, 모: 오나은)





2025.09.21. 피택자 역사관 방문



2025.09.28. 찬양부 연합찬양대 헌신예배





2025.09.21. 교구만남의 날





2025.09.21. 교구만남의 날





2025.02. ~ 09. 월삭새벽기도회 특송



지도목사 이필형
부 장 강영우
부 부 장 박문호
총 무 이상원
회 계 김미진
서 기 박현아

편집위원
취재기자
스튜디오
편집
발행

곽수영, 곽지예, 김원진
안주현, 양선미,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군열
왕해진, 이금환, 이수경, 전용철
우제오, 박효윤, 이정구
안지현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 화 (053) 253-2615 ~ 7
팩 스 (053) 253-2618
주 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발 행 일 2025. 10. 19.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 메 일 fch_pub@naver.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장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3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11 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5년 12월 27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 또는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한글(워드)파일**로 원고를 준비해주시고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 VISION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을 잇다!
내일이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